

팀웍으로 무재해 준공을 추구하는 현장! 원칙에서 안전을 찾는다

신동아건설 대구 대곡역 달서 파밀리에 아파트 현장

스치는 한 점의 바람에도 온몸이 흔들리는 길가의 코스모스가 안 쓰럽고, 파란 하늘은 청명하기 그지없다. 돌덥의 곡식은 가을햇살에 익어가고, 웅기종기 모여 있는 참새는 허수아비 눈치 살피기에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무재해 시공이 한창인 대구 달성군 구라리에 있는 신동아건설 달성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현장(유일재 현장소장)을 찾았다.



팀웍이 강하면 안전의 목표는 이루어진다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는 각각의 구성원으로 한사람의 불행이 단순히 그 한사람 만의 불행이 아니라 가족의 불행이며, 사회의 불행이다. 다시말해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은 개인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안전이 왜 필요한지, 꼭 지켜야만 하는지를 알고 있는 이 곳 현장에서는 먼저 협심 단결을 한다. 모든 일과 조직에서 팀웍이 강하면 어려운 난간도 헤쳐 나갈 수 있고,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의 궁극적인 목적, 인간존중, 무재해도 팀웍으로 일궈간다.

다음은 모든 공정에서 지켜지며, 안전과 병행되는 원칙과,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경영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철저한 정리정돈과 생활화된 현장점검으로 불안전요소를 제거하고 주기적인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철



▲ 유일재 현장소장

저한 보호구 착용은 근로자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슬기로운 공법선택이 무재해 준공의 기반이다 ■■■

수십년 동안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베테랑들에 의해 특별히 어려운 공정이 없다는 이곳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흠막이공사와 지하주차장 구체 공사 공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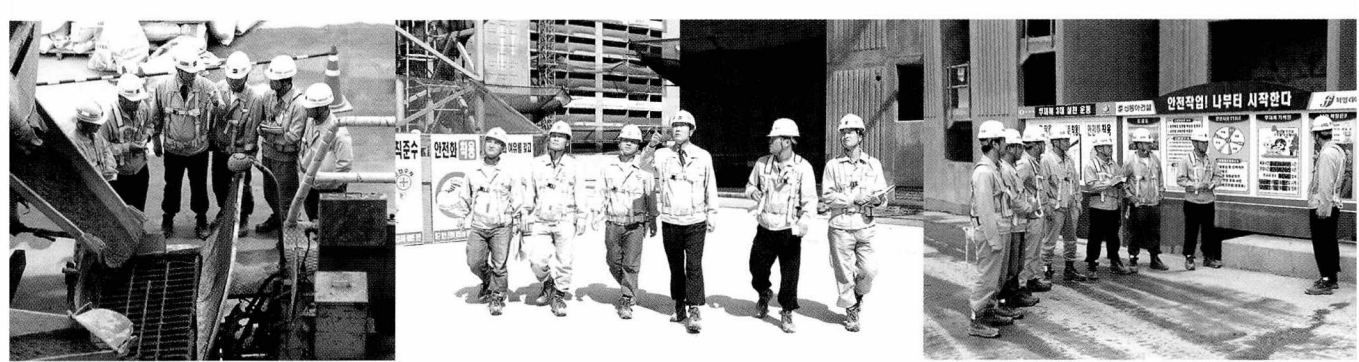
흠막이 부분은 당초 제거식 에스앙카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레커 방식으로 일부 변경하여 공정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극대화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계측관리를 시행하여 붕괴 재해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CON'C타설 시 무지주 공법인 PFR 공법을 도입하여 슬라브 거푸집의 변형으로 처짐이나 붕괴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높였고, JACK SUPPORT를 일반 써포트 대신에 선시공하여 거푸집 붕괴 사고 방지는 물론 구조체의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아파트 구체공사 진행에도 AL폼을 사용하여 가설재를 대폭 줄여 작업통로 확보 및 효율적 안전관리를 진행함으로써 오늘도 무재해는 계속되고 있다.

파밀리에 아파트 현장의 안전활동 ■■■

안전을 위한 특별한 비책이나 비결은 없다고 생각하는 이 곳 현장 사람들은 현장 구성원 모두의 단합된 생각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는 안전 난간대 설치 철저가 있다. 발코니 안전 난간대에 대하여 갱폼인양 전, 미리 설치하여 갱폼인양 작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락재해 방지를 위해 난간대 설치는 철저히 한다. 그리고 보행자 통행로 확보다. 작업 구간 외에 통행이 어려운 부분은 폐쇄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이 밖에 근로자의 건강과 사고 발생을 하나로 생각하여 작업 개시전 일일 안전활동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현장 출력하여 작업하는 12개 협력업체 근로






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안전보건 협의와 정기적인 교육과 참여 안전을 위한 포상제도 등도 단합된 생각과 즐거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끝으로.... ■■■

유일재 현장소장은 무재해 준공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 “지금 이곳 현장은 마라톤으로 치면 반한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안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 만큼 앞으로 더 노력하여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하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는 유일재 현장소장만의 바람이 아니다. 이 곳 사람들 하나하나의 소망이고 바람일 것이다. 무재해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겠지만 노력만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고, 기본을 지켜나간다면 안전한 나날이 될 것이다. 이들의 바람처럼 무재해 준공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